

LG화학 여수공장 운송료 일괄인상

카고 대상 13% 인상 소급적용 ... 컨테이너는 1TEU당 11만5000원으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LG화학이 처음으로 카고 차량과 컨테이너 차량의 운송료를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LG화학에 따르면, LG화학 화물 운송사는 화물연대 소속 관계자들과 협의를 갖고 카고 차량은 다른 여수 산업단지 입주기업 화물 운송사와 마찬가지로 운송료를 13% 인상해 6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컨테이너 차량은 여수공장에서 제품을 싣고 광양항으로 가면 컨테이너 1TEU(20피트 1개)당 9만원에서 11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광양항에서 빈 컨테이너를 싣고 여수공장으로 오면 1TEU 2개당 7000원을 주기로 했다.

LG화학 화물 운송사와 화물연대가 모든 화물차의 운송료를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6월18일 오후 여수 산업단지 화물 운송사협의회와 화물연대 전남지부의 운송료 협상에 큰 영향을 미쳐 파업이 조기에 타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 산업단지 화물 운송사협의회와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카고 차량 운송료를 13%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컨테이너 화물차량 운송료에 대한 접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18>